



“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

■ **마 18:1-10**
 오늘은 어린이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1956년부터 5월 첫 주일을 어린이주일로 지키면서 다음세대에 대한 사랑과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날로 삼아왔습니다. 사랑은 지지받고 용납되고 존중받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3A(Agree, Accept, Admire)입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에는 그들을 지지하시는 Agree가,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다’라는 말씀에는 어린이를 용납하시는 Accept가, ‘절대 실족시키지 말라’는 말씀에는 아이들 한 사람의 삶을 존중히 여기시는 Admire의 마음이 드러나 보입니다.

1.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의 결론은 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은 믿음에서 이탈하는 일을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 박해에 직면하면서 신앙 밖으로 끌려 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 의해 밀려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서로 높아지려는 욕망과 다툼에 있습니다. 이 지적에서 우리 모두 자유롭지 않습니다. 높아지려는 욕망의 배후에는 이기심과 교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어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지 말 것을 경고하십니다.

2. 실족의 무서운 결과들
 연자 맷돌을 목에 매달아 수장시키는 처형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 대한 형벌이나 공공의 질서를 크게 파괴한 자들에게 행한 극형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무서운 범죄인 것을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실족이 세상에 끼치는 악한 영향은 지대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 유다왕국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라가 망한 원인이 므낫세 왕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므낫세는 55년간 재위하면서 우상숭배에 몰두했고 신접한 박수들을 신임하며 성전에 우상을 세우는 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위대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위를 물려주는 일에는 성공했으나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영적으로 실족한 한 사람이 나라를 무너지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실족하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하며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3.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다음세대가 신앙을 전승받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가정의 자녀이지만 심각한 갈등과 방황의 시기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이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회귀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어렵습니다. 엡3:18에는 하나님 사랑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즉 무분별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필요한 것을 베푸는 총명함이 겸해져야 참 사랑인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말년에 얻은 아들 므낫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없었기에 그 아들을 불행하게 되게 했고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폭군이 되게 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감고 있어도 향기가 풍기면 곁에 꽃이 있음을 알고 악취가 풍기면 오물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삶에서 향기가 느껴지고 진정성이 확인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에 감동 받은 아이들은 잠시 방황하다가도 결국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사랑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의 첫 주일 어린이주일을 맞이합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사회가 정상화로 나아가는 이 때에 우리도 더욱 힘을 내어 예배와 섬김의 회복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5월1일)부터 8층 식당을 일부 정상화하여 찬양대원, 원거리 거주 성도 및 주일 종일 봉사자 중심으로 점심을 제공하고, 차츰 전 성도들께 확대할 예정입니다. 배식시간은 오전11시~오후1시로 제한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501_sermon.jpg

서울교회 당회 드림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 of on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QR코드</p>
-------------------------------	--	-----------------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 교 사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해(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는 시공이 변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 따라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는 자기 목회를 소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양을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목회를 하셨다. 그는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행하셨고 가르치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파괴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해를 이루시려고 말씀계시와 행위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목회는 하나님의 목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이기 때문에 목회는 교회보다 우선한다. 예수님이 최고의 목회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회는 교회의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결정한다. 따라서 목회는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어야 하고 그러나 교회 내 다른 은사가 있듯이 다른 목회도 있다. 하지만 모든 목회가 그리스도의 목회를 닮아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목회를 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부활하심으로 실현하신 것처럼 목회자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한다. 예수님의 목회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아버지께로 향하신 것이다. 목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회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 뜻을 만나고, 이 세상을 향하려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어둠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변화시켜 구원키 위해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빛을 비춰주는 목회가 하나님의 목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으므로 목회자는 거듭난 신자를 만들고,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천국시민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목회를 교회에서 이루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후 승천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높여지고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듯이 하나님의 목회자는 자기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계속되었다.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되듯 목회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능력 없는 목회는 죽은 목회다.

말씀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자기 목회가 아닌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김을 받고 그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이 있고 뜨겁게 기도로 아버지께 여쭙어 가면서 균형 잡힌 신앙 인격과 겸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는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협력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II 오전 11시	조원영 목사	최광성 장로
III 오후 2시	전재홍 목사	전재홍 목사

압레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마 19:13-1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4(4)...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96(어린이주일)...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569(442)...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마 18:1-1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563(411)...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찬양예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전재홍 목사, 설교: 손달익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07:8-9 인 도 자
 찬 송 315(512) 다 함 께
 기 도 박성국 집사
 찬 송 321(351) 다 함 께
 성 경 행 21:1-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만류와 강행” 설 교 자
 * 찬 송 213(348)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인도: 장석남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 I부: 박정자 권사 II부: 김순진 권사
 성 경 행 21:17-2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 · 김양연 · 박수강 · 김복희2

설 교 손달익, 안용근 목사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회소식

모임

- 디자인팀 월례회 / 5월1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 스데반 임원회 / 5월1일(주일) 오후 1시 502호
- 정기당회 / 4일(수) 2부 예배 후 402호

알림

- 101호 예배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예배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예배 / 부서 모임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부서 모임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세례 문답교육 : 주일 오후 1시-1시3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부서 모임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예배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예배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706호 예배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이번주 심방 일정
2-8, 2-9, 3-8, 7-1, 8-1다락방
☑ 결 혼
1. 정민성 군(2교구 정수환 집사, 이선민 집사의 장남) 전은혜 양(전운환 집사, 엄성원 집사의 삼녀) / 5월5일(목) 오후 3시 라움 3층 폰드가든(02-538-3366) / 9호선 선정릉역 4번 출구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528명	850명	2,378명	419명	2,061명

모범적 지도자 모세

나라가 어려울수록 좋은 지도자가 그리워진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민족적 영웅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 지도자다. 그는 자기 백성 구원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지도자다.

바른 선택을 할 줄 안 모세는 바로의 공주와 맺은 인정의 줄을 끊고 자기 동족과 함께 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하였다. 최악의 낙을 포기하고 의의 길을 따랐으며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다.

무엇이 모세를 이 같은 지도자가 되게 했다? 대답은 간단하다. ‘믿음으로’ 살고 결단하고 행동했기 때문이다.

심판 날에 선악간에 판단하실 이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지도자들이 이 나라에도 많 아지기를 기도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써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오십시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